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1)-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본	삼상16:4-13	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문	(핵심요절: 시27:4)	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88)

<도입 질문>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원에게 잘 대해 주게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마음에 꼭 드는 학생에게 잘 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라는 표어로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사가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단>-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1. 아래 삼상13:14을 읽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인물은 성경 속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 삼상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구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 사도행전13:22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위의 구절로부터 약 1,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개>

- 1. 어릴 때 찬밥 신세, 혹은 깍두기와 같은 신세였던 적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의 집안에서 찬밥 신세였고, 깍두기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 2. 다같이 사무엘상16:10-13을 펴서 읽어봅시다.

(**본문 설명:**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요구에 따라, 일곱 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막내는 바로 다윗이었는데, 이새는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 여덟 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일곱(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태어난 다윗은 집안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일곱 명의 형들만 소개했던 것은 이런 연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막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3.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유는 시편27:4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 시편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 자신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분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4. 어떤 노래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하면, 계속 보고 싶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새 힘을 주신다(이사야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 그분의 형상을 닮게 된다

● 갈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꼭 맞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히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 미가서7: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적용 질문>

☞ 여러분은 최근 무엇을 주로(mainly) 바라보고 사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